

法の 갈망 · 애민을 우리말로 노래하다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
'만해의 길을 가다'

④ '님의 침묵' 과 오세암

님은 있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있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있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微風)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指針)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더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전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깨달음에 걸림이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베기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계곡조를 못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뽀뽀고 듭니다. (만해 한용운 '님의 침묵')



충남 홍성 만해문학관에 만들어진 오세암에서 시 창작을 하고 있는 만해 스님의 모형. 만해 스님은 1925년 8월 오세암에서 <님의 침묵>을 썼다.

1925년 중년의 만해 스님은 다시 설악산 오세암으로 돌아온다. 지척의 백담사가 출가의 길을 걷게 한 곳이라면 오세암은 만해 스님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곳이다. 3.1 운동 주도한 이후 3년 간 옥고를 겪었던 스님이 오세암을 찾은 것은 출가 초심을 다시 되짚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스님은 오세암에 들어온 후 장경각에 있는 책 속에 파묻혀 지냈다. 그곳에서 만해 스님은 매일당 김시습의 <십현담 주해>를 발견한다. <십현담>은 동양산찰 선사의 법문으로 뜻이 오묘해 초학자가 읽기에는 어려운 편이다.

김시습의 <십현담 주해>를 읽은 만해 스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집필 작업에 들어간다. 결국 그해 6월에 만해 스님은 <십현담 주해>를 완성한다. 불이 붙은 집필 욕구는 시적(詩作)으로 이어졌다. 염천(炎天)의 여름, 만해 스님은 <십현담 주해>를 완성한지 2달만에 '님의 침묵'을 비롯한 시 80여 편을 탈고한다.

속성으로 시를 창작할 수 있던 것은 갑작스런 감흥이 영향이었다는 주장과 오랜 시간 사유와 전작이 바탕됐다는 시각으로 나뉜다.

고은 시인의 경우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 탈고는 하루만에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고은 시인은 "그의 시작점은 그 시의 초고들을 잔뜩 읽고 있다가 그것에 갑작스러운 감흥의 영감이 불을 질러서 하룻밤의 깊은 내성악의 어둠에 쌓인 그의 산중밀실에서 완성됐다"고 기술해놓고 있다.

반면 이명재 중앙대 명예교수는 탈고 1년 전부터 초(草)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3.1 운동으로 3년간의 옥고를 치르면서 거작(巨作)을 만들 수 있는 사상적 전작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자신의 논문 '한용운 문학 연구'에서 "3년에 걸친 옥중 생활에서 동지나 후배들이 차입해주는 서물(書物)에서 한 시와 불서 이외의 근대문학이론이나 작품은 물론 구미의 신문학을 불규칙한 접근방법으로 대해보던 미흡성을 보완할 수 있었다"면서 "아마 여기에서 만해 스님은 '님의 침묵'의 테마와 감정적 주조의 틀이 잡혔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순간의 감흥이던 오랜 사유와 천착의 결

1925년 여름 설악 오세암서

'님의 침묵' 80수 속성 탈고

옥고 중 면벽 수행 詩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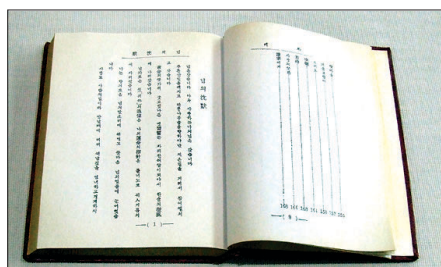
민족사에 길이 남을 詩로 평가

'님', 민중·불타 등 다중적 의미

과이던 만해 스님은 1925년 8월 29일 오세암에서 시집 <님의 침묵>을 탈고한다. 수행 자이자 불교 개혁가,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해오던 스님이 40대의 끝자락인 47세에 시작자의 욕구를 보이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적지 않는 논자들은 스님이 시를 쓰기 시작한 이유는 중생을 위한 마음과 깨달음을 우리말로 노래하고 싶었던 문인의 욕구가 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님의 침묵>의 서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군말'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님 만 님이 아니라 기쁜 것은 다 님이다. 중생(衆生)의 석가(釋迦)의 님이라면 철학



님의 침묵 표지(사진 위)와 초간본(사진 아래)

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의 님이 봄비라면 맞지니의 님은 이데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느니라.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에 알뜰한 구속(拘束)을 받지 않느냐.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나는 해 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羊)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을 위해'라는



오세암 전경. 이곳에서 만해 스님은 <십현담 주해>와 <님의 침묵>을 썼다.

기독교적 문구마저 차용하면서까지 만해 스님이 강조한 것은 이 시집을 발간한 이유가 번뇌와 불안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구제함에 있다는 것이다. 불교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인 중생구제와 같은 애민(愛民) 정신의 발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집 <님의 침묵>에 수록된 시는 '님'을 중심축으로 구성됐다. 최동호 고려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님의 침묵>에 나타난 호칭은 당신(39편), 님(36편), 너(2편), 그대(2편), 애인(1편), 무호칭(6편)으로 정리될 수 있다. 당신과 님이 중점적인 호칭으로 사용됐지만, 결국 '님'은 이 모두를 포용하는

호칭이다.
그렇다면 만해 스님의 '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역시 만해 스님의 문학을 연구하는 논찬자마다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부여한다. 앞서 <님의 침묵>을 분석한 최동호 교수는 "당신·님·그대·애인 등 호칭은 달라도 만해에게 '님'은 민족·조국·민중·불타·중생 등 바로 그 모근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님의 침묵"은 기다림의 시학"이라고도 평가했다. 스님의 문학 속 '기다림'은 조선시대 정철의 '사미인곡'과 같은 권력자를 향한 충절이 아닌 떠나간 조국

을 찾기 위한 민족해방의 기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님이 떠나감을 역설적 인 출발점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최 교수의 연구를 대표적으로 인용했지만 '님'이라는 한 글자가 만들어낸 해석의 스펙트럼은 실로 다채롭다.故 장백일 국민대 명예교수는 <한국현대문학론>에서 만해 스님의 님에 대해 "불타 정신에 뿌리 박은 조국을 의미한다"고 했으며, 조종현 시인은 "절대 자유" 곧 '진아'로, 김중균은 "민중과 불타를 일체화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오세암 서울대 교수는 "열반의 경지에 들게 하는 참다운 무아(無我)"라고 님을 해석했으며, 김홍규는 "님은 완전한 모습으로 이 세계 안에 존재하지도 전혀 부재하지도 않고 그것을 갈구하는 자의 끊임없는 예기(豫期)와 모색의 실천 속에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봤다.

이 같이 다양한 논찬들이 있을 정도로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이 가지는 문학사적 가치는 크다. 만해 스님의 시 전편을 해설한故 송옥 서울대 교수는 만해 스님 시의 가치가 이 같이 평가한다.

첫째로 만해의 시는 시문학사에서 가장 높고 넓으며, 깊은 인간을 표현한 작품이다. 둘째로는 그의 산문시가 현재 이 나라에서 시로서 표방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절실한 시를 상상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시학평전(1963) 中)

그러면서 만해 스님은 시대의 아픔을 황금을 빚어내는 도가니로 만들고 이를 통해 나타난 <님의 침묵>시집 자체가 하나의 이변이라고 경외하고 있다. 어린 아이도 쉽게 읽을 수 있지만 '님'이라는 단순하면서 다양한 시적 상징체계로 대학교수마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도 만해 스님의 시학의 매력이라는 것이다.

불교대전은 3.1운동, 즉 일제의 굴레를 태우려는 고향 속에서 <님의 침묵>이라는 황금꽃밭으로 이변했다. 따라서 이 시집은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는 대장경이기도 하다. '님'이 불교의 진리를 말한다고 함은 바로 이런 뜻이다. 이 시집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이변이며, 또 읽는 이에게도 어떤 이변을 빚어내게 말이다. (송옥, '시인 한용운의 세계' 中)

오세암은 '간절히 바라면 이뤄진다'는 관음영험설화를 창건설화로 가지고 있다. <님의 침묵>이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는 것은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만해 스님의 원력이 닳았기 때문일 것이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연등시공 전문기업

보련기획

보련기획

특가행사 진행중

보련기획은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품전선과 LED전구를 사용하여 직접 시공 관리합니다.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p style="background-color: #add8e6; padding: 2px; font-weight: bold;">만월등</p>	<p style="background-color: #add8e6; padding: 2px; font-weight: bold;">바림등</p>
<p style="background-color: #add8e6; padding: 2px; font-weight: bold;">팔각주름등</p>	<p style="background-color: #add8e6; padding: 2px; font-weight: bold;">연꽃만월등</p>
<p style="background-color: #add8e6; padding: 2px; font-weight: bold;">팔각접등</p>	<p style="background-color: #add8e6; padding: 2px; font-weight: bold;">공단등</p>
<p style="background-color: #add8e6; padding: 2px; font-weight: bold;">연화연등</p>	<p style="background-color: #add8e6; padding: 2px; font-weight: bold;">인등</p>

정품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